

국회의원 선거 多者구도 형성될 듯

통합민주당 · 한나라당 · 무소속 대결구도 전개양상

4.9국회의원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각 예비후보들은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 공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지난 2월18일 공천면접 심사를 마친 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여론조사를 의식해 인지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월20일과 26일을 전후해 포천시연천군 출마예정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척사대회 현장을 방문하면서 인지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의 경우 한나라당 공천이 마무리되면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결정된다. 통합민주당 후보로는 장명재 예비후보가 유력한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4.9국회의원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대결구도는 3파전 혹은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6명의 공천신청자 가운데 3명으로 압축된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차상구 예비후보는 "공심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보다는 인지도에서는 낮겠지만 지지도에서는 높게 나올 것"이라면서 "최종 공천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중앙당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예비후보는 미국 세법전문가라는 점과 해외동포 참정권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공천신청자들의 제출자료와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검토를 마무리하고 2월 29일 국무총리 인준에 따른 표결 후 3월초순경 공천대상자를 일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조흥 현 국회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무총리와 장관 인준안 처리를 위해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공천심사위원들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공심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는 보거나 나머지 2명보다는 월등히 앞설 것이고, 이같은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천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무소속

박윤국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25일 박윤국 예비후보는 "시정일관 무소속 출마를 고려해 왔으며 조만간에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공천심사 위원들이 현지 사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정권과 권력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 "18대 총선을 통해 연천과 포천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유권자 기적을 일궈낼 것"이라면서 "이 시대에서는 새 인물, 연천 · 포천을 잘 알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당은 이명박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예비후보는 공천은 일괄 내밀거나 로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새 정부와 함께 일할 사람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통합민주당은 지난 2월19일부터 23일까지 공천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는 장명재 예비후보 1명이 신청했다.

장명재 예비후보는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가 4.9총선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되었을 때는 지지층이 분열되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가 많지만 통합을 이룬만큼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 격려에 말도 있었다"면서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와 같이 단순 공천신청 지역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명재 예비후보는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가 4.9총선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되었을 때는 지지층이 분열되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가 많지만 통합을 이룬만큼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社 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아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2008년1월29일부터 2008년2월26일까지 '포천시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이나 물품을 기탁하신 고마운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고마움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금

이나 물품을 받으신 분들도 아래와 같이 밝혀 서로 돕고 사는 정신을 실천해 나가 있습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으로 계좌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성금 및 물품접수내역**

- 백운계곡관광지부 부인회 일동 1,000,000원(직접기탁)
- 김중현 윤빌딩 대표 200,000원(자동이체)
- 강수동 동천장학회 이사장 200,000원(자동이체)
- 박노련 용아침유 대표이사 100,000원(자동이체)
- 권영주 포천제일교회 담임목사 100,000원(자동이체)
- 한병숙 청송삼계탕 대표 100,000원(자동이체)
- 윤이용 동성사 대표 100,000원(자동이체)
- 정준호 출장부대 청심홍실 대표 50,000원(자동이체)
- 박병식 이몽맛갈비 대표 50,000원(자동이체)
- 박병희 30,000원(통장입금)
- 정승연 가산산거리 추어탕 대표 30,000원(자동이체)
- 강욱자 늘봄꽃의원 대표 20,000원(자동이체)
- 유재철 10,000원(자동이체)
- 송우리지역 노래연습장 모임 이재정 회장 외 회원일동 100,000원(월 정기이체)

▶ **디지털 노래방 이연자**

- 원 노래방 대표 김영철
- 삼 노래방 대표 정종립
- 오아시스 노래방 대표 정동국
- 폴리노래방 대표 김영찬
- 팔콘 노래방 대표 이규진
- M·S 노래방 대표 김한성
- 초콜릿 노래방 대표 이민철
- 퀵 노래방 대표 정수환
- 2차 노래방 대표 하춘자
- 유영가 노래방 대표 채경순
- 코러스 노래방 대표 이재정

▶ **성금 및 물품 전달내역**

- 해뜨는 집(원장 박진수) 50만원
- 이만석 강도사 50만원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54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

시장 현대화 경영혁신 지원근거 마련 위해

포천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역상권이 타격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견해다.

포천시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시장의 현대화와 마케팅 및 경영혁신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포천지역 재래시장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크게 위축되어 있다. 게다가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경쟁력은 크게 하락하고 고객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어 상인들의 분심이 발생하고 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골자는 ▶인정시장의 인정기준, 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지정요건 및 범위, 지정절차, 관리, 등록취소 등의 규정 ▶농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신청자격, 사용료 규정 ▶상인회 설립 등 등록, 등록취소, 예산지원, 서류비지 규정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공설시장의 관리, 지정취소 규정 ▶시장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 지도감독 등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사항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처분통지, 강제징수 등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규정 등이다.

이같은 조례제정은 2004년 발효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초하고 있고 특별법은 2016년까지 지속되는 한시법에 의한 것이다.

포천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14억원을 들여 일동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그리고 포천동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운천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북면에서는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2월말경 용역결과가 나온다. 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포천시의 입장이다.

포천시가 추진하거나 지원사업을 전개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하지만 재래시장과 상점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자체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지역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더라도 임시적인 방안이라도 나와야 가능하다. 둘째는 재래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가격과 서비스에서 앞선 대형마트에 기인한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영업방식의 개선과 주차장과 같은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포천지역 5일장은 송우리와 포천, 일동, 운천, 관인, 이동, 가산, 양문 등에서 개설된다. 포천지역 5일장은 일동장을 제외하고는 몇몇 상인들이 장사를 할 뿐 소규모라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시 관계자는 "포천5일장이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용역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철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지역 상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사해서 임대료를 제외하면 수입이 거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사가 안되다 보니 점포 이곳저곳에는 점포임대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포천지역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소비패턴이 과거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사회는 인터넷이나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많다.

이들과 경쟁에서 재래시장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공동 쇼핑몰 개설이나 주차장 시설 등의 고객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www.gg.go.kr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풍요로운 대한민국 3만불 시대

기기가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대한민국 성장률보다 두 배를 앞지르며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성장 엔진 경기도-

IT·BT·NT 등 첨단 지식산업을 선도하며 전국 일자리의 60%를 만들어 낸 곳, 경기도가 이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My Town My Gyeonggi

투자하기 좋은 환경 동북아시아의 물류 거점 평화와 희망의 땅 산업경제중심 세계 최대 IT·BT·NT 산업 친환경 첨단농업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마을회관을 서당으로活用

화투나 오락 등 멀리하는 계기 마련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주민들은 농한기에 마을회관에 모여 화투를 치거나 장기바둑 등 오락으로 소일하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가채리 서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붓글씨를 배우는 마을 주민들이 20여명이 넘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시작하여 열심히 붓글씨를 연습하여 대회에 출전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가채리 서당의 훈장은 집 포천시의회 최영갑(65·사진) 의원이다. 이곳에서 붓글씨를 배우는 마을 주민들이 20여명이 넘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시작하여 열심히 붓글씨를 연습하여 대회에 출전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2월 24일 일요일에는 서당 회원 부부동반으로 웃놀이 대회를 개최해 서로 친목을 다지고 서당발전의 건전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최 훈장은 "농한기때 마을회관에서 화투나 오락을 즐기던 것보다 낫겠다고 싶어 시작했다"고 밝

혔다. 마을에서 분위기는 주변사람들이 모범사례로 이곳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이 서당에서는 쓰고 난 붓을 잘 씻어서 나무에 걸어놓는다. 걸어 놓은 장면이 일품이다.

붓글씨를 쓰면 좋은 말씀으로 정신수양이 되고 가족이 화목해진다. 또한 각종 대회에 출전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 화비는 월 1만원이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최 훈장은 "겨울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붓글씨를 교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을회관이 겨울에는 따뜻하지만 여름에는 너무 더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고 있어 포천시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한다.

특히 이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 스스로 건축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시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게 마을주민들의 바람이다. 신북면 가채리 마을회관은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83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주민들은 농한기에 마을회관에 모여 화투를 치거나 장기바둑 등으로 소일하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가채리 서당을 운영하고 있다.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2008년도 자문위원회 주요 추진사업 논의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제23차 정기회의가 지난 2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포천신문자문위원회 2007년도 재무보고 및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인준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2007년도 재무보고의 건에서는 2007년도 일부 자문위원들의 미납회비 처리여부를 논의했으나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자문위원회는 2008년 주요 사업으로 분과위원회 활성화,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참구지원, 포천신문 5개단체 체육대회 지원, 포천시 장 보결선거 여론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타안건 토의에서 윤종성 자문위원은 현재 3개 분과 운영체제에서 그동안 논의한 것처럼 환경분과 신설해 4개 분과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기회의

의 모임때는 각 분과위원장이 분과 위원들에게 회의참석을 알리자고 말했다.

이어 한희준 고문은 정기회의 때 각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자문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 앞서 이보용 위원장은 "무자녀 새해에 들어 처음 갖는 정기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올 한해는 자문위원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호열 포천신문 대표이사는 "새해를 맞는 포천은 국회의원선거와 포천시장 보결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포천시민들의 관심이 많다"고 지적하고 "포천신문이 독자들에게 알찬신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제23차 정기회의가 지난 2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시립어린이집 ①

반월 어린이집

"반월은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놀이터 시설 위해 포천시 예산 수립 절실



“우리 반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풍성한 생명력을 키우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제공하고 재미에 빠져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나와 이웃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여 성취하는 자신감,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창의적인 태도와 사고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교육이 되도록 힘을 기울여 신나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바른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반월어린이집(원장 이선숙) 원장과 교사들이 소개하는 반월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이다.

이선숙(48·사진) 원장은 “아이들의 권리는 가장 중요한 인격체이며 유아기는 중요한 생애 한 단계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귀엽다고 놀이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어떤 재능을 가졌다고 수입의 대상으로 여겨서도 안됩니다. 아이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지금과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밝혔다.

반월어린이집은 ▶생각할 줄 아는 어린이 ▶감시할 줄 아는 어린이 ▶자신감 있는 어린이를 원훈으로 삼아 전인교육, 기본생활 습관 형성, 어린이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다양한 환경 제공, 서로 믿고 사랑과 꿈을 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위한 학습, 특기교육과정을 운영 방침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인교육은 건강한 어린이, 예의바른 어린이, 함께 할 줄 아는 어린이, 친구의 말을 바르게 듣는 어린이, 주의 깊게 관찰하는 어린이,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반월어린이집은 2006년 9월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며 여성부에서 인정한 보육을 병행한 교육기관이다. 생활보호 대상자녀와 저소득층 아동, 모자·부자 결손자녀, 실직 가정 아동,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은 보육료 전액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월어린이집은 신축 건물로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넓은 놀이 공간인 유희실, 목욕실이 있는 유아 전용 화장실을

실질적인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포천시립도서관을 이용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책을 빌려보고 그림일기를 쓰도록 하여 유아논술교육을 실시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길러주고 독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2008년도 경기도 취약보육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원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근로형태 다양화에 따른 시간간절 보육활성화

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시간간절 보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육시간은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이다. 이 원장은 현재 반월어린이집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동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포천시 예산을 편성했으나 의회에서 삭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추경예산이라도 놀이터 예산이 확보되어 반월어린이집 원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모든 원아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바라고 있다. 놀이터는 원아들의 대근육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시설이다. 이 원장은 “반월어린이집 원아들을 포천의 뿌리로 키우고 싶다”며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가산면지부는 2월25일 12시 가산면 마전리 원화순 총무 자택에서 2008년 한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웃놀이 대회를 개최했다.

2008년 만사형통, 행복만땅 기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정월 웃놀이 개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가산면지부(지부장 박서영)는 2월 25일 12시 가산면 마전리 원화순 총무 자택에서 2008년 한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웃놀이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가산면 지부 소속 주부명예기자단과 각 부단장, 총무, 각 읍면동 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웃놀이는 물론 새해에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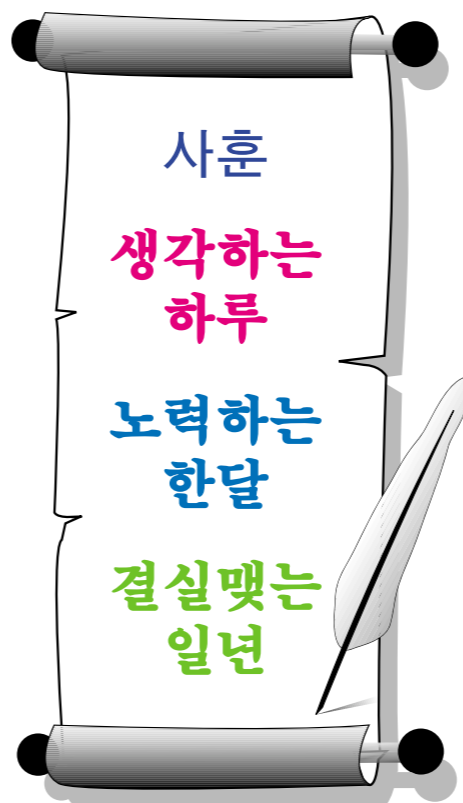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칼라착색전문

동산수지상사

압출가공 및 특수, 일반수지 판매

고객에 대한 제품 신뢰도 100%



동산수지상사는 칼라착색에 필요한 원료개발로 시간과 원가절감 등 협력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사 :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51-1
 전화 : 031)531-5704
 팩스 : 031)533-5705